

백두대간 국유림 5,335ha 천연보호림지정

산림청(신순우 산림청장)은 백두대간의 원시림, 희귀식물자생지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백두대간상의 국유림 5천3백35헥타르를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(민유림 28ha도 추가 지정)

- 산림청은 산림식물의 유전자와 종(種)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, 고산식물지대, 우리나라 진귀한 임상, 희귀식물자생지, 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천연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면서,
- '99년말까지 11,606ha의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였고, 지난해의 경우 백두대간상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임업연구원, 국립수목원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5,335ha의 국유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였으며, 이 면적은 서울 남산의 17배가 넘는 면적이라고 밝혔다.
-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면 산림법에 의거 공용·공공용시설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.
- 산림청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면적을 보호림으로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「천연보호림」의 명칭을 「산림유전자원보호림」으로 변경하는 산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,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천연림

뿐만 아니라 인공림에 대해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은 보호림으로 지정이 가능해
진다고 하였다.

- 이러한 보호림의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70퍼센트를 점유
하는 사유림의 산주(山主)들이 생태계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
보호림지정에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.

참고 1

천연보호림(국유림)지정내역

(2000년)

지정관할 기관	지정일자	구 분	주요식생식물	위 치	지정면적 ha
합계	17개소	-	-	-	5,335
북부지방 산림관리청	5개소	-	-	-	2,837
	2000. 11. 21	원시림	신갈나무	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	240
	"	"	"	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	125
	"	회귀식물	금강초롱	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	682
	"	"	"	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	745
	"	"	"	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	1,045
동부지방 산림관리청	5개소	-	-	-	1,378
	2000. 11. 30	원시림	신갈나무	강원도 삼척군 신기면 대이리	337
	"	회귀식물	금강초롱	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	323
	"	"	바늘까치밥나무	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	122
	"	"	도깨비부채	강원도 삼척군 가곡면 풍공리	430
	"	"	한계령풀	강원도 태백시 혈동	166
남부지방 산림관리청	3개소	-	-	-	820
	2000. 03. 25	회귀식물	신갈나무	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	400
	2000. 11. 06	고산식물	"	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	170
	2000. 11. 21	회귀식물	개박달나무	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	250
서부지방 산림관리청	4개소	-	-	-	300
	2000. 03. 18	원시림	소나무	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	30
	"	"	동백나무	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	20
	"	"	왕후박	전남 진도군 임회면 홍호리	40
	2000. 12. 08	회귀식물	구상나무	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침리	210